

## “국론통합에 종단이 역할 해달라”

법전 종정예하·원로의장 종산대종사, 총무원장 자승스님에 ‘당부’  
총무원장 스님, 7일 해인사·보살사 예방 “회합종책 펴겠다” ‘다짐’

### 법전 종정예하 “화쟁위원회 발족 매우 고무적”

법전 종정예하와 원로의회의 의장 종산대종사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는데 종단이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종정예하와 원로의장 스님은 지난 7일 해외 출국 및 추석 인사차 예방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혼돈을 겪고 있다”면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대립을 접고 국론을 통합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정예하와 원로의장 스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종단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여 국론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7일 오후 2시 해인총림 해인사를 방문해 대웅전 참배 후 퇴실당에서 종정예하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전 종정예하는 “총무원장 스님이 어려운 일을 맡아 고생이 많다”면서 “남북문제와 국내 정치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화쟁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지하였다.

이에 종정예하는 삼국통일 이후 혼란을 극복하는데 원로의회의 화쟁 사상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제한 후 “독일 통일 과정에 수백조의 예산이

들었던 것을 교훈삼아, (남북한 문제와 우리 사회 현안들의) 해결점을 찾는 데 화쟁위가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들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종단의 실천 이미지를 바로 잡고, 사회 전반에 어려운 일의 해결책을 찾도록 (화쟁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8시 50분 총무원장 스님은 청주 보살사에 주석하고 있는 원로의회의 의장 종산대종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의회의 의장 스님은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국민·정부·정치권과 소통하고 화

합해 종단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원로의원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원로의회의 의장 스님은 “국론을 통합해 국가도 태평하고 국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원로의장 스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통하고 국민이 통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스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4일부터 10일간 취임 후 첫 미국 순방에 나서는 총무원장 스님은 밤미 기간에 추석이 포함돼 있어 종정예하와 원로의회의 의장 스님에 출국 및 추석인사를 하기 위해 해인사와 보살사를 방문했다.

해인사·청주=이성수 기자

## 제184회 임시중앙총회 폐회

승려법 호계원법 개정안 통과...제14대 총회 사실상 막 내려

제14대 중앙총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제184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는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84회 임시총회 개최식을 거행했다. 총회의원 80명 가운데 51명이 출석한 개최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호계원장 범등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해충스님 등 교역직 스님들도 배석했다.

중앙총회 사무처장 해일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개최식에서 의장 보선스님은 “서로 다른 방법과 사고로 깊은 속의와 치열한 논의가 결국엔 하나의 바른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대의를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합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통

감하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회기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14대 중앙총회와 관련, 의장 보선스님은 “이제 마지막 책무를 점검하는 우리 앞에 몇 가지 의안들이 놓여있다”면서 “하나하나 점검하여 아름다운 회향으로 이어지도록 이번 총회에도 성의껏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는 충분한 소통으로 종도들에게 정책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14대 총회는 활발한 입법활동 뿐 아니라, 감사, 예결산 심의활동과 종단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

친 총회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호법부장 상운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을 비롯해 승려법·호계원법·중앙총회의원선거법·신도법·불교사회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5일간의 회기로 소집된 제184회 임시총회는 회기를 단축하고 하루만에 폐회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주었다. 이로써 4년간 의정활동을 해온 제14대 총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다음 총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제15대 중앙총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법전 종정예하(사진 왼쪽)는 지난 7일 오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오른쪽)의 예방을 받고 국론통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원로의회의 의장 종산대종사를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래 작은 사진). 김형주 기자

### ·종정예하와 원로의장 스님의 ‘語錄’

법전 종정예하 “화쟁위원회 발족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렵다. 무엇이 무엇인지 뒤죽박죽하고 가늠을 못 잡고 있다. 총무원이 발족한 화쟁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달라. 그러면 종단도 안정되고 나라도 안

정될 것이다.”  
원로의장 종산대종사 “밝은 지혜를 갖고 소통·화합하면 국론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온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종단과 불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불교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시절 인연이 좋지 못해, 종교간 갈등이 있지만 소통·화합하고 이해하면 해소할 수 있다.”



### 재무부장 성월스님 호법부장 상운스님

총무원장 스님이 신임 재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임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무부장 성월스님(사진 왼쪽)과 호법부장 상운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상운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중앙총회에서 만장일

치로 통과됐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재무부장 성월스님에게 “종단 수익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호법부장 상운스님에게는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세우는 한편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임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



성월스님과 호법부장 상운스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2면에 계속

## 청소년교리대회 6000여명 응시

작년보다 2배수 증가...11일 전국 8개 시험장 동시 개최

9월 11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참가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6일 “9월 11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하는 교리경시대회에 6000여 명이 참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접수 마감한 결과, 시험형태로 치러지는 중·고등부의 경우 총 2619명이 접수했으며, 퀴즈대

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초등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312명(예선 31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4일 9사단과 25사단에서 군중병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군중병 교리경시대회에 65명이 참가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2384명에 비해 2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올해 퀴즈대회로 경시대회 방식을 변경하면서 예선 참여 인원만 3100여 명을 넘어서며 높은 증가율을 나타

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15명, 부산 273명, 대구 460명, 대전 134명, 광주 218명, 전주 59명, 경북 262명, 남양주 9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회 교리경시대회는 11일 오전 11시 전국 8개 지역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초등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체육관에서 퀴즈대회 형식으로 결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경시대회 접수사이트(www.eunjung.or.kr)에서 수험번호와 고사장, 좌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출력된 수험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10시 4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가 대한민국 장례문화개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반 세기 동안 나라를 지켜온 마음으로 고객과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과 함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장례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부담스러운 장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와 용품 일체를 시종반대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복잡한 장례절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례절차는 물론 화장장 예약까지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장례 시 추가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 고인을 위한 장례용품/상주용품 일체 제공
- 장례절차,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 안내
- 고인 운구를 위한 리무진, 앰بول런스 제공
- 전원 장례지도사 및 조문객 도우미 파견

**향군가족만의 특별한 혜택**

- 전국 지정 종합병원 건강검진 서비스
- 전국 협력 콘도 및 숙박시설 할인혜택
- 웨딩관련 서비스 할인혜택
- 향군 친화원, 군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할인

# 080-888-5000

무료상담전화 상담시 다니시는 사찰명을 말씀해주세요

중요정보: 1. 추도금/향원금 및 환급기준: 회원은 제1회 추도금에 의해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10일(연말)에 환급 다. 만기 3개월 후 해지 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 사자 분정 시 분정의 해결기준 (주)향군가족 회원의원에 의해 3. 주요제물용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사자·원사의 종류: 대마 100% (중국산·원단의 제조 방법 및 제조자·수제직·국산인 등) 나. 관의 제작: 대마 및 원사자·매장 시: 오토(나무) (중국산 3cm~4.5cm·화상 시: 오토(나무) (중국산 1.8cm~3cm) 다.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가리, 차림)의 종류: 운구리무진(린컨 캐딜락, 에쿠스(2008년식 이상·장의버스) 현대, 기아(2006년식 이상)·추가비용: 상복별 기본 무료제공 가리 외 차량(가리 추가 시: 10km 당 운구버스 16,000원/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공지역 및 행사(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도우미 추가 시: 1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 4. 환급기준 현황 (2010년 3월 10일 기준) 가. 상조회원잔산: 199억 원 총 고액향군유여부: 154억 원 (국민회에서의 화계검토를 받았음. 효리회가입인 나. 고액향원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외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선단체 등 10여개의 관리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